## 일주문



### 삼천배 철야기도 봉행

지원 삼보사 주지는 22일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에서 삼천배 철야기도를 봉행한다.



### 평양 아리랑축전에 참가

도안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회장은 8일 평양을 방문해 아리랑축전에 참가한다.



### 도솔암 3돌 기념법회

회정 진천 도솔암 주지는 6일 오전 10시 도솔암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이 법문한다.



### 美 불교계 돌아보러 출국

지범 제주 불광사 주지는 미국과 캐나다 불교계를 돌아보기 위해 3일 출국했다. 11일 귀국 예정.



### '아름다운 삶' 주제 법문

범안 서울 금선사 주지는 5월 21일 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아름다운 삶' 주제로 법문했다.

### 대한법화종정 구암스님 입적



영남범패 인간문화재이자 대한불교법화종 종정인 구암스님(사진)이 5월 27일 새벽 2시 모라 관음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61세. 1926년 양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1년 인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통도사 내전과 외전에서 수학하고 1984년에는 부산어산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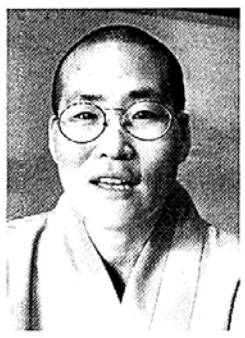
영남범패와 호남, 경기범패로 양분되는 범패의 흐름 중 영남범음범패의 산교과서 역할을 해온 스님은 93년 범패부분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94년부터 사단법인 영산재보존회를 창립해 영남범음범패 도제 양성에 힘써왔으며 1천여명의 후학을 길러냈다.

특히 94년 영남범음범패 테이프 20개를 완간했으며 99년에는 영남범음범패 비디오를 제작해 영남범음범패 원형 보존과 전승에 일획을 그었다.

구암스님의 영결식은 31일 오전 10시 관음사에서 봉행됐다.

# "한국 불교학 발전 기여하고 싶어요"

## '능가경 인도주석서 …' 로 美 하버드대서 박사학위 소운 스님



"미력이나마 한국 불교학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강단에 서서 불교학도들과 함께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요."

6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능가경 인도 주석서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운스님(사진)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졸업소감을 밝혔다.

1989년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일본 동경대 문학부 인도철학과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소운스님은 동경대 박사과정 중인 1994년 하버드대 범어인도학과에 입학, 8년간의 공부 끝에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어 동국대에 입학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고 싶은 것이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욕심을 내볼까 합니다."

소운스님의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학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스님은 한국불교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적 팽창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불교학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 외국어 능력 키워 학문적 토대 굳건히
### 학자·승려로서 '실천하는 삶' 살고파

"하버드대학만 해도 티베트나 중국불교를 전공하는 교수가 있고, 근대 인도나 남방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불교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소운스님은 한국불교의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학문적 토대가 굳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충분한 연구를 위해서는 불교학과 관련한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영어, 일어, 중국어, 범어, 티베트어 등 불교학 연구에 필요한 언어를 모두 구사할 줄 안다.

"사실 18년간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장학금과 한국에 계신 지인들의 후원으로 해결했지만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승려로서의 본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죠."

한국불교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운스님은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면서도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국불교학과 제 자신을 공동운명체로 생각하고 학자로서, 승려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소운스님은 6일 박사학위를 받은 뒤 10일쯤 귀국해 불교학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봉사하는 불교상 심는데 주력"

##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운광 스님



대표에 선출돼 앞으로 성남시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남시의 탄천 오염과 시내 환경오염 등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스님이 밝힌 성남시의 환경문제 현안은 용산 미군기지의 성남이전과 율동자연공원 내 미니랜드 건설 등.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과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생각이다.

### 환경문제 사회단체와 연계 모색

운광스님이 환경운동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지난 5월 성남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장에 위촉되면서부터. 스님은 "수행자로서 모든 실천의 우선가치는 수행을 통한 해탈"이라며 "수행자의 근본정신과 행동윤리를 지키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진취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불교상을 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환경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떠 오르고 있고, 불교계에서도 수행환경권 수호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의 환경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 풀 수 있도록 종교인들의 지혜를 모을 계획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원적정사 주지 운광스님(사진)이 5월 25일 열린 성남환경운동연합 총회에서 문병학 신부(성남동성당)와 함께 공동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제 자리서 부처님 위한 일 서원"

## 성남서 농사짓는 불자 박정희 씨



가 치밀어 올라 엎던 병도 생길 지경이었던 것.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살아 온 길을 회고하다가 그간 만났던 스님들과 찾아갔던 절들을 떠올리게 됐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앞으로는 부처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가진 것이라야 농작물 밖에 더 있나요. 병원 신세 지느라

### 사찰에 장미·채소 원가 시주

경기도 성남과 분당에서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불자 박정희(사진)씨. 그는 최근 부처님께 "제가 재배한 장미와 채소를 사찰에 원가로 시주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 노부모를 모시고 농사 지으며 열심히 살아 온 그가 이 같은 발원을 한 것은 교통사고 덕분(?).

지난 4월 초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천성이 농사꾼이 그가 한창 바쁠 절기에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일' 이었다. 날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울화

농장 관리가 잘 안됐는데도 장미도 잘 피었고 당귀 나물이나 파슬리 등 채소 농사도 잘 됐습니다. 어느 절이든 연락이 오면 택배로 보내 드릴 생각입니다. 행사를 앞둔 사찰의 경우 장미를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1만여 평 농장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을 도매시장 납품가의 절반 이하 값만 받는 것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지만 박씨는 병고에서 얻은 서원을 알차게 지켜 갈 생각이다.(011-763-2660)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 조계종, '태조왕건' 작가·PD에 감사패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오른쪽)은 5월 21일 KBS 특별기획 대하역사드라마 '태조왕건' 이환경 작가와 김종선 PD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수여했다. 정대스님은 "'용의눈물'에 이어 최근 종영된 '태조 왕건'이 사회통합에 기여했으며, 불교역사와 사상을 훌륭히 소화해 국민들에게 전달한 공로를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 조계사 동자승 26일 12명 환계식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달간 출가생활을 했던 12명의 조계사 동자승들이 5월26일 대웅전에서 환계식을 갖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동자승 도법스님(7)은 사중스님 및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원문 낭독을 통해 "조계사를 벗어나서도 모범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해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



## 동산반야회 월드컵 성공기원 타종

동산반야회는 5월 25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월드컵범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산불교대학장 무진장스님, 김재일 회장, 불자가수 김흥국 씨 등 50여 명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폐막식까지 매일 타종행사를 갖기로 했다. 왼쪽부터 첫 번째가 김재일 회장, 세 번째 김흥국 씨, 네 번째가 무진장스님.

## 삼광한글학술상 수상자 선정





삼광사 삼광한글학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도원)와 한글학회 부산지회(지회장 류영남)는 29일 제15회 삼광한글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교대회와 함께 열리는 삼광한글학술상 수상자에는 박순국(전 개성중 교장·사진 오른쪽) 부산외솔회 운영위원과 김언주(인제대 국문과) 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5일 오후 6시30분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지관전에서 갖는다.


# 겸 임 교 수 초 빙

대한불교조계종 종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는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도제양성을 위해 유능한 교수님을 아래와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모집분야**

| 학 과 | 모집전공분야 | 인 원 |
|---|---|---|
| 사회복지학과 | 방법론·정책론 전공자 | 2 |
| 역경학과 | 팔리어·산스크리트 원전 전공자 | 1 |
| 포교사회학과 | 포교사상 및 포교역사 전공자 | 1 |

**지원자격**

1. 박사학위 소지자(2002. 8. 31 취득 예정자 포함)를 원칙으로 함
2.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대학교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에서 연구 또는 교육내용과 본직 기관에서의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제출서류**

1. 국문이력서(반명함판 및 연락처 기재) 2부
2. 학력(학위)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외국학위 증명서는 국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
3.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1부
4. 연구(저서)실적목록(발표자, 발표내용, 발표기관, 발표연도순으로 기재) 1부
5.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98.3.1. 이후 발표된) 실적물 1부
6. 기타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 1부
7. 사업주의 겸임교원 동의서 1부
8. 재직증명 및 소득원 확인서 1부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2002. 5. 30(목) ~ 2002. 6. 11(화)마감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2.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번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기 타**

1. 겸임교원으로 임용시 1년 계약제로 하며 1년경과 후 재심사하여 임용함 2.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함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술진흥재단 신고접수증(등록증명서)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학처(031-980-7777, 980-7713~7717)로 문의바람.

중 앙 승 가 대 학 교



# 승보종찰 송광사 하계 수련법회 안내

16국사의 도량 순천 조계산 송광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기 2546년 하계 수련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2002년 여름수련법회 일정

| 차 수 | 기 간 | 모집인원 | 신청기간 | 대 상 |
|---|---|---|---|---|
| 1 | 2002년 7월 7일 ~ 7월 11일 | 120명 | 5월 27일 ~ 6월 10일 | 일 반 인 |
| 2 | 7월 14일 ~ 7월 18일 | 120명 | | |
| 3 | 7월 21일 ~ 7월 25일 | 120명 | | |
| 4 | 7월 28일 ~ 8월 1일 | 120명 | | |
| 5 | 8월 4일 ~ 8월 8일 | 120명 | | |

■ 모 집 요 강

가) 신청대상
- ○ 수련법회 신청대상 (4박 5일) : 20~60세까지의 남·여 일반인
- ○ 자원봉사 신청대상 : 송광사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차수 10명 내외
- ○ 참가통보 : 6월 25일까지 개별통보

나) 신청서 작성

아래 사항을 A4용지에 빠짐없이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바람 (전화신청은 받지않습니다)

※ 팩스로 신청하실때는 보내신 후 꼭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름 (한글, 한문)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우편번호 필히 기재)
4. 직업 5. 전화번호 (연락가능 전화번호.직장.자택.핸드폰) 6. 종교
7. 수련법회 참가 경험 유무 8. 원하는 차수 9.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

○ 접수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수련법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 540-930)
★ e-mail : sgs@songgwangsa.org ★ 팩스 (061)755-0408
○ 문의처 : 전화 (061)755-5303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가능)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현봉

홈페이지 : www.songgwangsa.org